

#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관점으로 본 춘천 G5 국제설계경기 출품작 분석

김아연\* · 고미진\*\* · 오형석\*\*

\*서울시립대학교 · \*\*(주)디자인 로직

## Re-reading Chuncheon G5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rom a Viewpoint of Landscape Urbanism

Kim, Ah-Yeon\* · Koh, Mi-Jin\*\* · Oh, Hyung-Seok\*\*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LOSJK Landscape Architects

### ABSTRACT

A city evolves over time. It grows, transforms, and sometimes degrades. Chuncheon is at a turning point from a city struggling with regulations regarding clean water supply and a military encampment to a masterpiece city with a sustainable vision. The city is getting ready to restructure itself to become a world-famous culture and tourism complex expanding its physical boundary across the Camp Page site and absorbing Jungdo as a major tourist attraction.

The landscape in the future blueprint of Chuncheon will play a great role in restructuring urban form. The regenerated city will have a new networked open space system as well as re-evaluated landscape resources. The hybrid theoretical practice called "landscape urbanism" burgeoning in the fields between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ism" can guide us in considering the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ity and landscape when we design a future city. Landscape urbanism is considered to be an effective framework by which we can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a landscape in our contemporary urban design practice in Korea. This paper tries to provide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viewpoint of landscape urbanism to decipher the hidden implications of the social agreement on the role of landscape in urban structure by re-reading eight design proposals presented for the Chuncheon G5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based on the main principles of landscape urbanism. The G5 design competition is a great opportunity to test out new ideas on a city, demonstrating the relative values among various urban-design professional realms.

First,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main ideas of landscape urbanism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ies. Second, framework categories are suggested in order to extract the explicit and implicit ideas on the landscape. Third, eight proposals are reviewed according to the suggested categories to situate the current landscape design of Korea within the mainstream of contemporary practice of landscape urbanism.

Based on the review of eight proposals, the following diagnostic conclusions are made; first, the ideas of landscape urbanism have not been actively introduced in large-scaled urban landscape projects in Korea like Chuncheon G5. Second, it remains to be a big task for landscape professions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design consortiums on an equal footing. Third, In order to introduce and reify the ideas of landscape urbanism in Korea, it is inevitable and critical to test the ideas in both academic fields and professional practices to find the appropriately adjusted model of landscape urbanism.

*Key Words: Urban Re-generation, Urban Design, Landscape Design, Site Analysis, Landscape Drawing*

## 1. 서론

도시는 생명체와도 같다.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어느 시점 그 기능을 잃고 쇠퇴하기도 한다. 영생을 꿈꾸는 현대의 많은 도시들은 그 해결책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의 설계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시 프로젝트에서 그 시대의 요구와 비전을 공간적으로 제안해왔다. 국내의 여러 도시들도 새로운 문화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도시의 틀짜기를 벌이고 있다. 비록 혁신도시 선정에서 탈락하였으나 낭만과 호반의 도시 춘천도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명품도시”건설을 위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춘천은 현재 인구 25만 여명의 소도시로<sup>1)</sup> 춘천만의 특수성과 함께 현대도시 성장의 일반적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군 주둔에 의해 도시의 구조가 왜곡되었고, 물리적·문화적·사회적 성장속도가 지체되었으며, 댐의 건설과 상수도 보호구역권에 편입되면서 여러 가지 개발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반환되고 고속화도로가 완공되어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춘천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시구조 재편과정에서 미래 도시의 외부 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춘천은 풍부한 경관자원, 즉 충도와 호수, 댐과 워터프론트, 공지천과 봉의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존 자원을 재조직하고, 도시적 규모의 거대한 외부 공간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어서 본 G5 프로젝트는 조경인의 입장에서 더욱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춘천 G5 프로젝트<sup>2)</sup>를 조경적 관점, 즉 외부 공간과 경관에 초점을 맞추어 당선안 및 제출안에 나타난 경향을 검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조경설계의 큰 흐름중의 하나이며, 도시와 조경의 통합된 시각으로 도시의 경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랜즈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은 도시 스케일의 외부 공간을 재편해야 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의 구조를 제안해야 하는 G5 프로젝트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의미한 이론적 틀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들이 춘천 G5 설계 경기에 제출된 안들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채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분석하여, 현재의 우리나라 조경설계에 있어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입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해외 조경설계의 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이 우리나라 조경설계의 특수한 지형 구도 속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로운 모형으로 정립될 수 있기 위한 시발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춘천 G5 국제설계경기 개요

2005년 춘천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미군부지가 반환되고, 2009년 춘천~서울 동서고속국도, 2010년 경춘선 복선전철이 완공될 예정이며, 강원도 전역으로 관광, 스포츠, 문화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춘천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기에 더할 나위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 춘천 G5 프로젝트는 이러한 상승세를 타고 춘천시의 성장 효과를 극대화 하여 고품격·친환경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신도시 건설(G1)과 호수, 섬, 수변지역을 활용한 친환경 문화관광복합지구(G2~G5)를 조성하고 미군 부지(Camp Page) 이전에 따른 기존 도심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본 설계경기의 진행 과정은 1차 자격심사를 통하여 9개의 컨소시엄을 지명하였고, 최종적으로 8개 컨소시엄이 설계안을 제출하였다. 그 중 2개의 안이 당선안으로 선정되었으며 7월 시민투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한 개의 안을 채택할 예정이다(강원도개발공사, 2005a). 개별 설계안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설계경기 개요와 대상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경기 개요

- 1) 공모명: 「춘천 G5 프로젝트」 문화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 국제현상공모
- 2) 공모 주최 및 주관: 강원도와 춘천시(주최), 강원도개발공사(주관)
- 3) 공모 방식: 제한적 일반공개공모
- 4) 심사 방식: 1단계 자격심사 후 9개 팀 선정, 2단계 심사위원회 심사 후 2개 팀 선정, 3단계 시민위원회 심의 후 2개 안의 순위 결정
- 5) 심사위원단: 국제적인 인지도가 있는 도시, 건축, 조경, 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국외 심사위원 4명, 국내 심사위원 3명, 예비 심사위원 1명으로 구성<sup>3)</sup>

### 2. 대상지 개요

#### 1) 위치 및 면적

- (1) 위치: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 중도동 일원
- (2) 면적: 약 22,716,000m<sup>2</sup>(약 688,300평, 춘천역사부지 53,000평 포함)

#### 2) 지구별 현황

본 대상지는 의암호를 중심으로 중도를 포함한 춘천도심의 서쪽 지역으로, 춘천 도시재개발계획을 위한 핵심거점 다섯 지역(G5) 중 네 곳이 본 사업에 해당한다. 첫 번째 대상지인 하중도(G2)는 과거에 북한강의 작은 지류만이 흐르던 물이었으나, 의암댐 건설 이후 올라간 수위에 의해 많은 부분이 수몰되고 침식과 퇴적의 작용을 거쳐 현재의 섬이 형성된 것이다. 현재 청소년 캠프 시설을 포함한 유원지로 사용되는 면적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 반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적석층 등 초기철기시대의 문화를 일부 지니고 있다. 근화동 일대 워터프론트로 개발예정인 G3지역은 현재 상공업, 농업, 주거 등의 복합적 토지이용을 보이며, 일부 낚시터와 놀이배 등 무계획적인 수변 위락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 밖에, G4지역은 2005년 이전된 미군 캠프 페이지 지역이며, G5지역은 춘천하수종말처리장 및 유수지로 이용되고 있다. 춘천 도심 서쪽 외곽부인 G3~5 지역과 중도인 G2지역은 댐 건설 이전에는 나루와 소로로, 현재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여객선으로 연결된다(그림 1 참조).

### 3. 설계경기 지침

#### 1) 일반사항



그림 1. 대상지 위치 및 구역구분도  
자료: 강원도개발공사 제공

본 설계공모 지침은 대상지인 문화관광복합지구의 재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명품도시로 미래에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계획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사업은 춘천이라는 도시자체가 하나의 문화 및 관광 상품으로 가치를 가지기 위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만들기 위한 작업으로, 이를 통해 춘천 도시 전반에 걸쳐 재활성화(revitalization)와 도시부흥의 파장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

2) 지구별 설계지침

본 설계경기는 의암호 주변 춘천 구도심을 고품격 문화관광복합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정원과 워터프론트, 미래지향적 복합타운 및 생태공원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구별로 제시된 구체적인 설계지침은 표 1과 같다.

3) 지침의 분석 및 시사점

본 설계경기의 공모 지침 및 설계지침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논점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본 설계경기는 3단계에 걸쳐 당선작을 선정하도록 짜여져 있다. 1단계인 자격심사를 거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해외업체와 국내업체가 같은 팀을 구성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실행능력도 함께 염두에

둔 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격요건이 국내업체는 기술사사무소로 제한하고 해외업체는 일정규모 이상 설계경기에서 당선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구상안들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로 지구별로 주최측의 개발 방향과 기본적인 이용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주어진 골격과 프로그램에서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도인 G2부분을 보태니칼가든(botanical garden)으로 명시한 것과 G5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지정한 것 이외에도 봉의산으로부터 중도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강조한 점, 친환경적인 도시상을 전제로 한 점 등 지침서에 명시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조경의 영역을 공원과 녹지체계를 주요 설계영역으로 삼았던 전통적인 의미의 조경설계분야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에 영역이 확장되고 혼성화되는 경향(배정환, 2004)을 고려한다면 그 기회성은 더욱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 전제는 도시적 규모에서 기반시설로서의 조경을 대 전제로 삼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도입하기에 매우 좋은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8개의 도판 구성이 매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정된 스케일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판마다의 개략적인 지침이 있었으나 그 구속력이 강하지 않아서 설계팀의

표 1. 지구별 설계지침

구분	G2	G3	G4	G5
계획 방향	세계적 수준의 정원 (World class garden)	세계적 친환경적 친수공간 (Waterfront)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복합타운	생태공원
계획 범위	중도동 일원 340,000평	근화동 일원 66,000평	근화동 및 소양로 일원 213,000평	근화동 37,000평
관계 법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공간구성 및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자연도 3등급지역</li> <li>· 평면의 한계를 극복한 입체적 계획</li> <li>· 선박과 병행하여 케이블카 등 교통수단 도입</li> <li>· 문화재 관광자원화 가능성 검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고도지구에 의한 고도 제한 없음</li> <li>· 연약지반처리, 매립 쓰레기 처리방안, 침수 방지대책에 근거한 설계</li> <li>· 시설면적의 연면적 10만평 이상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군부대로 왜곡된 도심기능 회복</li> <li>· 대상지 동서, 남북 네트워크 교차지점에 시민을 위한 광장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처리장 및 유수지의 혐오시설을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li> <li>· G3 부지내 가매립된 약 36만톤의 쓰레기를 유수지에 이전, 영구매립 후 활용계획</li> <li>· 하수종말처리장 내 악취발생 시설 복개 후 활용계획</li> </ul>

자료: 강원도개발공사, 2005a: 10-15. 필자 재작성

의도에 부합하는 도판 구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 III. 분석의 틀

건축물을 중심으로 도시의 구조를 사고하는 전통적인 도시설계 접근은 프랑스 메룽-세나르(Melun-Senart) 신도시계획 설계경기(1987)에 제출된 OMA의 제안을 통해 의미심장한 도전을 받는다. 작품 설명에서 렘 콜하스(Rem Koolhaas)는 “무엇이 지어져야 하는가 아니라 무엇이 지어지면 안 되는지, 어디를 개발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개발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도시구성의 핵심 전제로 삼았다(Koolhaas *et al.*, 1997)”고 밝히고 있다. 도시의 빈 공간(void)들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며 이렇게 체계화된 빈 공간은 도시의 진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국제 아이디어 설계경기에 나타난 뚜렷한 성향중의 하나도 공원 및 녹지공간이 도시의 정체성과 성장방식을 부여하는 중요한 인프라 스트럭처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2 참조). 이러한 흐름 역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향은 현대의 도시설계경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최근의 설계경향에 관한 문헌 및 사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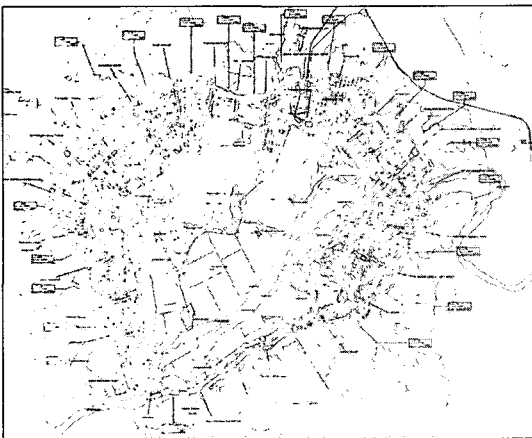


그림 2.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당선안 중 하나인 “천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자료: 김정은, 2005: 151

구를 통하여 본 설계경기의 분석에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도출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선안의 우수성을 분석하기보다는, 제출안들에 나타난 조경영역의 역할과 경향을 파악하여 현재 국내의 도시설계 프로젝트에 나타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입 정도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분석의 범주를 크게 대상지 분석, 설계내용, 표현 방식이라는 일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기초하여 제시하고 각 범주별로 세부 항목을 제시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설계설명서를 제외하고 제출용 도판만을 위주로 하였는데, 제한된 지면에 압축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특성상 표현내용에 대한 설계가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도판을 분석하는 데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1. 대상지 분석

건축과 타 예술분야에 비하여 조경에 있어서 대상지 분석이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70년대 맥하그(Ian McHarg)식의 기계적 중첩원리에 의한 분석이론 이후에 분석기법 자체에 대한 연구나 뚜렷한 이론은 대두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대상지의 분석에 기초하여 설계안의 형태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대한 정교한 이론도 나오지 않았다(Burns and Kahn, 2005). 설계경기에서 분석은 단지 거쳐야 할 요식절차에 그치거나 분석의 내용이 최종 결과물과 내연적 연관성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분석에서 얻어지는 대상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설계가 대상지의 컨텍스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한다(정옥주와 제임스코너, 2005).

Burns and Kahn(2005)에 의하면 대상지의 물리적 범위는 세 가지 측면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대지경계선 안쪽의 영역을 통제영역(the area of control)으로서의 대상지, 영향권 내의 대상지(the area of influence), 파급권 내의 대상지(the area of effect)이다. 이러한 대상지의 세 가지 측면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상지의 분석은 대지경계선 내부나 그 인접부지의 가시적인 특성들을 설명하는 데에 그치기 쉽기 때문이다. 세 번째 범주인 파급

권의 대상지 개념은 대상지의 변형을 통해 그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 매우 광역적이며 문화적인 장을 전제로 하며,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매핑(mapping)과 같이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지를 해석하는 동시에 설계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분석기법은 단순한 분석기법이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으로 이해되며(Corner, 1999) 이러한 대안적인 분석행위를 통해 대상지의 또 다른 차원, 즉 파급권내의 대상지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다. 계획행위(planning)가 이상적인 계획가의 비전을 대상지에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매핑과 같은 대안적 분석행위는 현재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잠재된 복합적인 숨은 힘들을 찾아내고 드러내는 행위이다(Corner, 1999, 그림 3 참조).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관련해 분석과정에서 유의미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주목할 만한 분석도면이 제시되고 있는가?
- ② 대상지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있는가?
- ③ 분석내용이 설계안과 연관관계가 있는가?

## 2. 설계내용

이 항목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관한 여러 문헌(Allen, 1998; Corner, 2003; 배정환, 2004; 정옥주와 제임스코너, 2005)을 통해 정리된 다섯 가지의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8개의 설계안을 분석할 수 있는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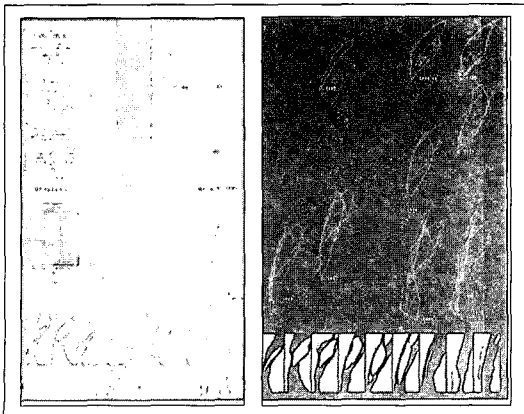


그림 3. 미시시피강의 침식과 퇴적을 보여주는 매핑  
 자료: Mathur and Cunha, 2001: 50-51

항들을 도출하였다.

### 1) 수평성과 네트워크

시각적인 즐거움을 중심으로 했던 전통적인 픽취레스크 경관의 개념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는 “도시의 진화와 생성을 수용하는 장(field)”의 개념(배정환, 2004)으로 확장, 전환된다. 이러한 장의 개념은 경관의 수평성(horizontality)과 대지 프로그램들의 상호관계에 관심이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관은 공간과 영역들 사이의 밀접한 연계성을 부여하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들을 수평적인 판으로 구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4 참조). 이러한 수평적 네트워크는 다핵화된 사회·문화 구조와 병행된다. 따라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관련해 분석과정에서 유의미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경관의 개념이 장(field)으로 확대되었는가?
- ② 외부 공간의 표면(surface)과 네트워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 ③ 다핵구조의 외부 공간 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는가?

### 2)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외부 공간

인프라 스트럭처는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로 협의의 물리적인 장치를 뛰어넘어 정책, 제도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프로그램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경관은 구체적이고 고정된 프로그램들로 짜여있는 상태보다는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향해 열린” 양상을 띤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관련해 분석과정에서 유의미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외부 공간이 도시를 구성하는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는가?
- ② 외부 공간이 시간에 따른 도시공간의 진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구조를 지니는가?

### 3)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란 “변화를 포용하며 사태의 친이를 예견하는 설계”이며 “설계의 초점을 공간에서 시간으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배정환, 2004). 도시와 경관이 “어떻게 보이는가에서 그것이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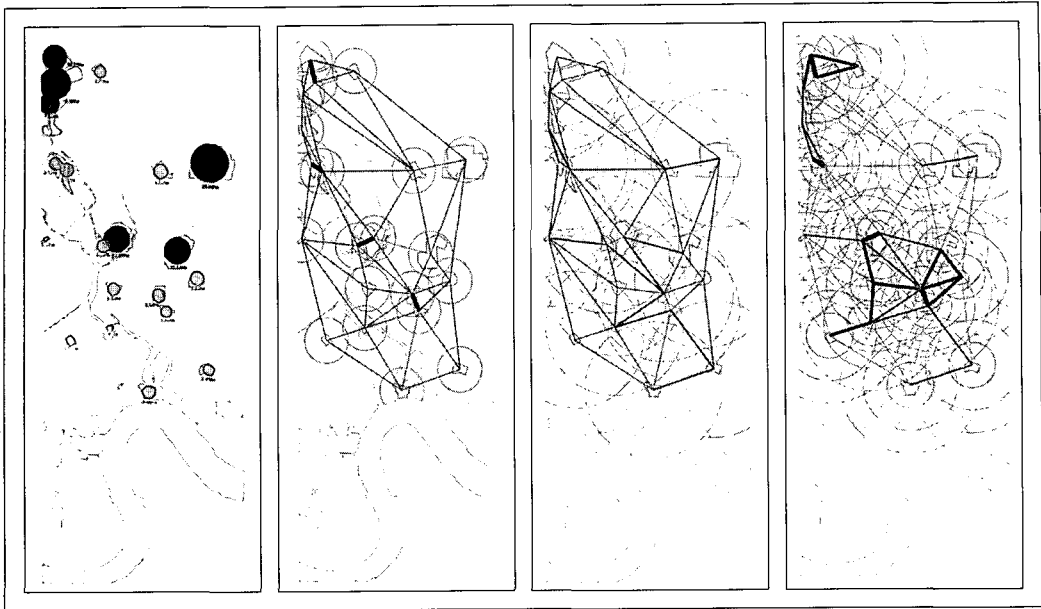


그림 4. 공간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자료: Corner, 2003: 20-21

떻게 작용하며 무엇을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Corner, 2003).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관련해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를 살펴보는 데에 있어 유의미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시간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가?
- ② 설계안의 형태가 변화를 허용하고 촉발시키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4) 전문가들에 의한 전략적 테크닉과 협업

대규모 도시 스케일의 본 설계경기는 그 규모와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인하여 여러 전문영역의 협업이 필수적이었다. 컨소시엄의 구성을 볼 때 건축, 도시계획 및 설계, 조경, 토목, 구조 전문가, 개발컨설팅 등 관련 전문가 집단들이 팀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협업의 과정이 얼마나 새로운 형태의 하이브리드 도시(hybrid city)를 탄생시켰는가는 다른 문제이다(그림 5 참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의미하는 전문가들에 의한 테크닉의 결과는 상호교류와 의사소통을 통해 조성된 혼성영역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도시와 경관을 제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에 의한 전략적 테크닉과 협업의 범주에서 유의미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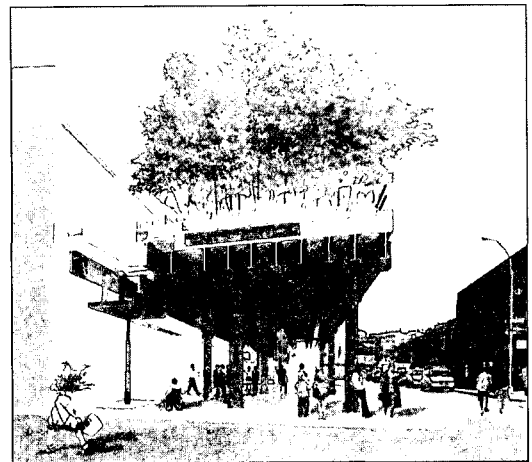


그림 5. 혼성적이고 복합적인 경관

자료: Field Operations: The High Line, 2004

- ① 다 분야간의 협업이 이루어졌는가?
  - ② 조경분야가 주된 코디네이터(coordinator)역할을 하였는가?
  - ③ 협업의 결과로 혼성적이고 복합적인 경관이 제안되고 있는가?
- 5) 역동적이며 과정으로서의 생태적 관점

생태학의 교훈은 “모든 생명이 역동적이고 상호관련되는 과정”임을 일깨워주고, 이러한 시각은 도시와 경관을 일종의 생명체로 이해하여 도시공간의 역동성과 진화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이러한 관점은 경관을 구성하는 주된 소재중의 하나인 다양한 동식물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물성과 그 복합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경관이 정태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경관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특성들과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생태학의 도시적 확장은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태적 관점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생태적 프로세스 복잡성, 그리고 경관의 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 ② 생태학의 개념이 도시와 물리적 환경으로 확장되어 있는가?

### 3. 표현

현대에 범람하는 설계 이론은 ‘어떻게’ 재현하는가보다는 ‘무엇을’ 재현하는가에 편중되어 있다(Corner, 1999). 즉 설계과정에서 적극적인 생성인자로서의 대안적인 드로잉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는 의미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그 스케일의 확장과 경관 개념의 변화, 과정과 변화 가능성, 불확정성 등을 그 핵심 아이디어로 삼고 있으므로 단일시점에 완성된 형태로서의 경관을 재현하는 전통적인 표현기법으로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 힘들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을 담기 위한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대안적인 표현방식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과 평행하게 등장하고 있는 표현기

법으로는 매핑(mapping), 플랜콜라주(plan collage), 전략적 다이어그램(strategical diagram), 포토몽타주(photo-montage) 등이 있다(Corner, 1999; 신근혜, 2004; 정옥주와 제임스코너, 2005; 송유진과 조정승, 2006).

매핑(mapping) 자체의 역사는 오래 되었다. 그러나 매핑의 기법을 조경설계에서 대상지를 이해하고 기록하는 새로운 방식이자 설계매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길지 않다. 지도만들기(map+ing)라는 드로잉의 명명법만 보더라도, 매핑은 지도를 만드는 사람의 시각과 태도를 반영하는 대상지 읽기이다. 앞서 제시한 분석부분의 범주와 견주어 대상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방편으로서의 매핑이 시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매핑은 “예측할 수 없었던 대상지의 컨텍스트의 두꺼운 층을 드러나게 하는 작업”인 것이다(Kilcoyne, 2004; 임선영, 2006: 117. 재인용)

현대의 설계과정에서 다이어그램은 공간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이 아닌 설계전략을 위한 창조적 과정으로 이해된다. “표현 장치라기보다는 실행 장치”라고 말한 아이젠만(Eisenman, 1999)의 지적처럼 실행 장치로서의 다이어그램은 전통적인 기능다이어그램(bubble diagram)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복잡한 사회적 현상과 다변화적 행위 결과들 사이의 개연성을 설명하는 “소통”을 강조한다.<sup>4)</sup> 오늘날 설계과정에서 보이는 다이어그램들은 공간의 형태보다는 공간간의 흐름과 관계망, 각 요소간의 다층적 연동관계, 시간의 개념을 포함한 동시적 공간과 행위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발 및 천이에 대한 단계별 다이어그램(phasing diagram)과 동선 및 프로그램의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 등이 전략적으로 사용된다(그림 6 참조). 이러한 다이어그램들



그림 6. 전략적 다이어그램의 하나인 단계별 다이어그램

자료: Field Operations: Lifescape, 2003



을 본 연구에서 전략적 다이어그램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할 것이며, 이는 전통적인 기능다이어그램을 제외하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일련의 다이어그램들을 지칭한다.

한편, 결과적으로 설계과정에 있어 완결된 공간의 형태보다는 변화 프로세스와 공간의 진화 가능성을 강조하므로 인해 완성된 형태의 마스터플랜보다는 전략적 다이어그램의 성격을 지닌 플랜이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필드 오퍼레이션(Field Operations)의 프레쉬킬스 설계경기 당선작인 '라이프스케이프(Lifescape)'와 램쿨하스(Rem Koolhaas)의 다운스뷰공원 설계경기 당선작인 '트리시티(Tree City)'는 역동적인 다이어그램적 플랜을 제시하며, 설계의도와 전략을 함축적으로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다(그림 7 참조).

디지털 카메라와 컴퓨터 그래픽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오늘날 조경설계의 표현기법으로 자주 이용되는 포토몽타주(photomontage)<sup>5)</sup>는 설계안에 의해 변화하는 대상지의 모습을 몽타주기법으로 입체적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하는데, 현상설계안의 의도된 설계전략을 효과적으로 피력하기 위해 과장과 왜곡의 표현과정<sup>6)</sup>을 거치게 된다(그림 8 참조). 이러한 포토몽타주의 특징은 마스터플랜과 함께 설계 의사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설계된 평면이 포토몽타주로 재현되는 것은 물론이고, 포토몽타주의 입체적 공간 이미지가 평면에 발견하지 못한 요소를 보완하며 설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토몽타주와 전통적인 컴퓨터그래픽 처리된 투시도는 비



그림 8. 쥬빌리기든, 포토몽타주

자료: <http://www.edaw.com>

록 결과물 자체가 비슷하게 나오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 이는 바로 설계과정의 일부로 설계가가 의도적인 과장과 왜곡을 통하여 경관의 물성과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는가와, 3D 컴퓨터 모델링을 통하여 건물 중심의 구도에서 경관이 단지 배경 혹은 픽처레스크적인 시각적 효과에 치중하느냐의 차이이다.

이러한 새로운 표현기법들은 그래픽적인 시각효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설계과정과 그 대상, 설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표현기법을 분석하기 위해 유의미한 질문 문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매핑과 같은 대안적 드로잉을 통해 대상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 ② 다이어그램적 배치도와 같이 가변성을 염두에 둔 배치도를 제시하고 있는가?
- ③ 다이어그램을 통해 변화와 유연성을 표현하고 있는가?
- ④ 포토몽타주 등을 통해 경관에 대한 설계가의 주장이 드러나며 경관의 복합적 물성을 표현하고 있는가?

#### 4. 종합

앞서 수행된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최근의 설계경향에 유의미한 질문을 중심으로 대상지 분석, 설계내용, 표현방식의 설계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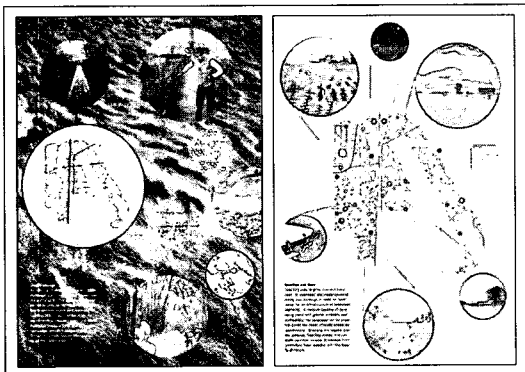


그림 7. 트리씨티, 다이어그램매틱 플랜

자료: <http://www.pdp.ca>

세스에 따라 범주화하여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표 2 참조).

### IV. 제출안 분석

2차 설계경기에 제출된 8개 출품작을 중심으로 앞서 제시된 분석범주를 토대로 조경의 역할과 기능,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8개 컨소시엄과 주된 설계개념은 표 3와 같다.

#### 1. 대상지 분석

조경가는 대상지의 독해가인 동시에 편집자이기도 하다(Meyer, 2005). 가능성에 불과한 대상지의 특성을 설계행위를 통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낸다. 분석과정을 설계과정과 분리시킬 수 없고, 설계과정의 일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계경기의 제출 도판에서 대상지의 이해 및 분석에 대한 부분은 매우 약화되어 있거나 아예 배제되고 있

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설계경기의 특성상 기본적인 자료가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대부분의 경우가 주어진 자료에만 의존하기 쉽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제 설계경기로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외국 설계업체가 낯선 언어로 된 새로운 형태의 자료를 스스로 발굴하여 새로운 설계개념으로 도출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통적인 자료에 의존함에 따라 분석내용 자체를 통해 설계안을 차별화시킬 수 없으므로, 분석내용 자체를 생략하거나 간략화 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판에서 분석도면이 차지하는 작은 비중은 설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굳이 분석도면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대개의 표현전략 때문일 수 있다. 분석도면과 설계안과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분석도면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석도면이 사라진 것은 흥미로운 일이지만 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해석과 설계안과의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표 2. 분석의 틀

분석 범주	분석 항목	분석 내용
대상지 분석	구도시와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 주목할 만한 분석도면이 제시되고 있는가 · 대상지의 특수성을 언급하고 있는가 · 분석내용이 설계안과 연관관계가 있는가
	수평성과 네트워크	· 경관의 개념이 장(field)으로 확대되어 있는가 · 외부 공간의 표면(surface)과 네트워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 다핵구조의 외부 공간시스템이 제시되고 있는가
설계내용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외부 공간	· 외부 공간이 도시를 구성하는 기반시설로 인식되고 있는가 · 외부 공간이 시간에 따른 도시공간의 진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구조를 지니는가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	· 시간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는가 · 설계안의 형태가 변화를 허용하고 촉발시키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전문가들에 의한 전략적 테크닉과 협업	· 다 분야 간의 협업이 이루어졌는가 · 조정분야가 주된 코디네이터(coordinator)역할을 하였는가 · 협업의 결과로 혼성적이고 복합적인 경관이 제안되고 있는가
	역동적인 생태적 관점	· 생태적 프로세스와 복잡성, 그리고 경관의 물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가 · 생태학의 개념이 도시와 물리적 환경으로 확장되어 있는가
표현방식	대안적 표현방식	· 매핑과 같은 대안적 드로잉을 통해 대상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부각시키고 있는가 · 다이어그램적 배치도를 제시하고 있는가 · 다이어그램을 통해 변화와 유연성을 표현하고 있는가 · 포토몽타주 등을 통해 경관의 물성과 설계가의 주장을 드러내고 있는가

표 3. 제출안 개요

구분 <sup>a</sup>	작품 제목	설계 컨소시엄	실제 전략 및 컨셉				
			전체	G2	G3	G4	G5
A	Spring Up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주)케이제엔지니어링 SWA GROUP(미국)	Spring Up (떠오르다)	Yearning Spring Up (마음의 그리움으로 떠오르다)	Water Spring Up (샘물이 쏟아나다)	Wind Spring Up (바람이 일다)	Bud Spring Up (새싹이 돋다)
B	U-Drama City	(주)건화엔지니어링 (주)삼안 (주)아키펠랜종합건축사사무소 R.N.M.Architects-Planners (미국)	U-nique Drama-City (춘천의 멋, 드라마적 감성의 도시)	Dream Island (Delightful Garden) (꿈의 섬)	Sunset Terrace (Romantic Waterfront) (석양의 테라스)	Lemonade Town (Artistic Suburban) (레모네이드 타운)	Challenge Park (Adventure Place) (모험공원)
C <sup>b</sup>	Urban Quilt	(주)유신코퍼레이션 (주)일신하이텍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엠앤디종합건축사사무소 Koetter Kim & Associates .INC(미국)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다양한 패치의 퀼트	Garden Quilt (정원 퀼트)	Culture Quilt (문화 퀼트)	Urban Quilt (도시 퀼트)	Eco Quilt (생태 퀼트)
D	City of Interlinked Unity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수성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유덕건축 Kaplan McLaughlin Diaz Architects(미국)	Weaving(엮기) Connecting(연결하기) Relating(관개맺기) Inviting(초대하기) Tying(잇기)	Water Theme Park (물 주제공원)	Green Cultural Band (녹색 문화 밴드)	City of Water (물의 도시)	Ecology Exploring Park (생태 탐구공원)
E <sup>b</sup>	Cite de Roman	(주)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주)동일기술공사 건축사사무소정건축 Parker Durrant International (미국)	로망시페	Exploration Island (체험형 테마정원)	Culture Quilt (호반형 복합도시)	Canal City (시민 문화 복합)	Ecological Park (친환경 생태공원)
F	City meets Island	(주)도화종합기술공사 (주)경화엔지니어링 (주)한아도시연구소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Baumschlager-Eberle(오스트리아)	City meets Island (Innovated Leisure City) (도시가 섬을 만나다)	Quest Garden (탐구의 정원)	Sky Park (Canal District) (공중 공원)	Mixed Use District (Sky Avenue) (복합용도지역)	Sky Park (공중 공원)
G	Cosmospiral	(주)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주)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Jones & Jones Architects and Landscape Architects. LTD (미국)	Cosmospiral (끊임없이 확장하는 거대한 그릇의 운하)	공원	위터프론트/ 리테일샵	복합 문화 사무지구	주상복합지구
H	City of Green Radiation	(주)서영엔지니어링 (주)도시엔(일본) (주)간삼파트너건축사사무소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Secret Garden (비밀의 정원)	Festival Gate (축제의 관문)	Art-Heim (예술의 전당)	Eco-Station (생태 거점)

자료: <http://www.g5project.co.kr>, 필자 재작성

<sup>a</sup>: 출전 G5 국제현상설계공모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된 순서에 의해 구분함

<sup>b</sup>: 2단계 심사위원회 심사 후 선정된 2개의 당선작

본 설계경기에 제출된 8개의 안들을 비교 검토해 본 결과 대상지의 이해 및 분석에 별도의 자리를 할당할 설계안은 4개 컨소시엄이나 그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 A안에서는 춘천시와 중도의 지형의 변화를 시대적으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선보였고, B안에서는 춘천의 역사를 보여주는 연대기표를 시각적으로 구성하여 소개하였다. C안에서는 별다른 각색 없이 “surface”라는 제목으로 중도의 항공사진을 다른 다이어그램들과 함께 제시하여 현재의 토지이용과 계획안의 연관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동서방향의 지역명과 같은 미기후를 고려한 외부 공간시스템이 제안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D안에서는 중도에 대해 이해(interpretation)라는 제목으로 중도의 경관에 대한 해석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도와 춘천시 대지의 형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설계안을 차별화시킬 대상지의 특수성에 주목할 만한 분석은 보이지 않았으며, 특이할 만한 분석도 많지 않았다. 따라서 분석과 설계안과의 연계성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C안에서 “local surface”와 설계안의 유사성은 현재의 토지이용에 따른 경관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설계안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연계성이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설계경기 심사위원들 지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은 대상지의 심도 있는 분석이 미비했던 결과라고 판단된다.

## 2. 설계내용

### 1) 수평성과 네트워크

도시적 스케일을 다루는 마스터플랜 설계경기의 특성상 수평적인 프로그램들의 상호교합과 질서가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모든 안에서 경관은 시각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을 벗어나 도시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도시구성인자로 고려되었다. 즉 모든 안에서 다양한 공간 이용프로그램들과 그 공간들을 네트워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방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설계지침서 자체에서 개별권역의 계획방향에 대해 지정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설계경기 지침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 규모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의 시각적 경험을 전제로 하는 픽취레스크보다는 거대한 스케일의 경관개념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수평적인 관계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유연성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한 안이 두드러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시규모의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하며, 공모지침서상에 표현되어 있다시피 춘천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비전을 “담을 그릇”을 제공해야 했다는 점에서 모든 안에서 유연성에 대해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장(field)으로서의 경관의 개념은 B안에서 서술되었던 것처럼 “드라마와 같은 풍경”과 같은 낭만적인 태도에 의해 간혹 흐려지기도 하였다. 현재의 토지이용패턴의 형태와 다양성을 도시구성의 전략으로 채택한 C안의 경우는 경관의 수평성에 강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설계안이라고 볼 수 있다. C안의 경우 경관은 평지에 가까운 중도를 수직적으로 변형시켜줄 것을 기대했던 주최측의 바람보다는 (강원도개발공사, 2005a) 작게 분할된 프로그램공간들의 네트워크에 더 집중하였다는 측면과 실제로 쉽게 침식 혹은 수정보완이 쉬운 단위공간들의 집합체로서의 경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연한 수평성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반면 E안의 경우 중도의 조형적인 볼륨감을 우선시 하였다. 설계경기 평가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과감한 중도의 접근”은 호수 및 수로를 조성하면서 굴뚝된 흠을 내부에서 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커의 언덕과 언덕들 사이에 조성된 테마정원으로 대표된다. 그러나 작품 전체에서 부각시키고자 했던 “낭만”은 “조형된 언덕에 화려한 꽃들로 경관연출”과 “낭만적 산책로”라는 투시도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경관의 개념은 데이트 장소로 좋을 호수와 꽃들과 정원들에 의한 픽취레스크에 더 가까우며, 장(field)으로서의 경관의 개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시의 다핵화는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점차적으로 해체되는 현대의 문화와 사회상을 공간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다핵화와 외부 공간의 다핵화는 B안과 C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B안에서는 여러 동선이 교차, 집중되는 전통적 의미의 핵이 도시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며, C안에서는 핵의 개념이 해체되어 강하게 중앙 집중되는 공간구조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할 만한 점은 대부분의 설계안이 중도나 춘천 시내의 핵심지역을 그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하여, D안의 경우 “ring”이라고 명명된 중도와 도시의 중간 영역, 즉 가상의 공간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리적으로도 매우 두드러지며 가시적이고 접근로가 집중되어 있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과는 매우 대조되는 아이디어로 중도와 춘천시라는, 발로 디딜 수 있는 지반이 아닌 물위에 떠있어 체험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물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부각시키려 핵심지역으로 삼았다는 측면이 다른 안들과 차별화된다.

## 2)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외부 공간

앞서 지적한 바대로 본 설계경기에 나타난 경관은 춘천의 새로운 질서를 조직하는 인프라 스트럭처로 인식되었다. 8개의 안에서 공통적으로 녹지공간의 네트워크와 흐름을 위해서 과감한 도시 구조물들, 즉 스카이파크, 에코브리지 등이 등장하였다. 설계경기의 표현상에서 설계내용이 다소 과장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빈 공간, 녹지공간, 외부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시구조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안들은 이러한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외부 공간의 유연성을 제시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부 공간은 너무나 딱 짜여진 공간 프로그램들로 매꿔져 있고, 그 형태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축축에서 완공시점으로 잡은 2020년에 나타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



그림 9. 설계안 D의 모델

자료: <http://www.g5project.co.kr>

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그러나 몇몇 가능성 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C안은 기존 토지이용의 형태적 틀을 채택함으로써 실제 토지매입 여부나 필지별 개발 가능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D안은 녹색의 모노톤으로 경관 인프라 스트럭처를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외부 공간이 구체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미래의 활동프로그램을 위한 기초를 닦는다는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9 참조).

## 3) 프로세스 중심의 설계

도시와 자연환경이 공존하며 진화해가는 틀을 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관점으로 보기에 춘천 G5설계경기에 제출된 제안들에 있어서 과정과 변화, 시간성에 대한 개념은 매우 약하게 드러나고 있다. A안에서 보여주었던 흥미로운 대지의 변화 다이어그램은 2020년 “완성(completion)”이라는 제목을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열린구조라기보다는 2020년을 기점으로 종결되는 도시구조를 의미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대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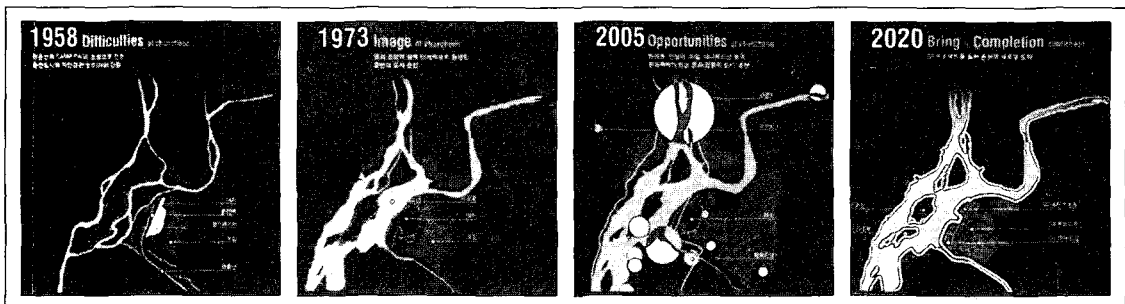


그림 10. 대지변화 다이어그램

자료: <http://www.g5project.co.kr>

변화다이어그램을 소개했던 또 다른 D안에서 “도시는 언제나 진행 중이다...도시의 풍경과 그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다.”라고 서술한 것은 특이할 만하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단순히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밀거름이 될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설계가의 변화와 시간개념에 대한 비전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못한 점은 역시 아쉽다. 출품된 대부분의 안들은, 특히 중도 설계에 있어, 매우 흥미로운 공간형태를 제안하고 있으나, 시간에 따른 지형이나 식재, 경관 등의 변화에 대해 세심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거나 변화 추이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4) 전문가들에 의한 전략적 테크닉과 협업

프로젝트의 특성상 여러 전문가 집단에 의한 협업이 필수적이었으나, 컨소시엄에서 주된 코디네이터 역할을 어느 분야에서 하느냐에 따라 프로젝트의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8개 컨소시엄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업체는 4개의 컨소시엄이 건축설계사무소, 나머지 4개의 컨소시엄이 도시계획을 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였다. 이는 역시 도시스케일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괄할 수 있는 역량과 규모를 가진 업체에서 그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해외의 조경설계사무소가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참여한 경우가 2개사인 반면, 국내 조경설계사무소는 건축설계사무소의 협력업체로서 참여하여 건축설계의 외주업체로 역할하며 표면적인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는 편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구도에서 조경가가 협업의 리더 역할을 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본 설계경기에 나타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적용 여부가 아직 미약한 것은 설계팀의 구성과 그 운영에서 보더라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무구조는 도시에 혼성적인 하이브리드 경관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5) 생태학

‘친환경’, ‘생태적’, ‘그린/블루 네트워크’와 같은 표현이 없는 국내 설계경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생태학은 조경설계에 있어서 쉽게 배제하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나 B안 “Eco/View Corridor”라는 표현

에서 볼 수 있듯이 “eco”라는 수식어는 생태학 자체의 역동성과 메카니즘에 대한 진지한 검토없이 쓰이고 있으며 몇몇 안들에서 그린네트워크라고 명명된 것도 단지 2열로 가로수가 식재된 넓은 보도에 지나지 않는다(그림 11 참조). 그러나 F안의 중도에 대한 제안에서 “Making Ecological Base”라는 제목의 일련의 다이어그램들은 주축에서 명명한 월드클래스 가든이 단순히 테마정원 이상의 역동성과 자체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C안에서 제안한 하수처리장의 변화도 “Eco Quilt”라는 제목에 비하여 “eco”의 실체를 확인하기 힘든데, 형태적인 측면에서 생태적이지 않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다만 설계안의 형태에 담길 수 있는 생태적인 기작에 대해 설득력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생태적이라는 표현이 어떤 특수한 형태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때 배타적이었던 생태적 설계와 예술로서의 설계는 그 형태적 배타성을 허물고 새로운 접점에서 융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김아연, 2005).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과 도시를 이해하는 입장이 설계안에 드러났는가일 것이다. 그러나 본 G5설계경기에서는 생태적 변이와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없이 “생태적”이라는 단어만 수식어처럼 사용한 경우가 많아 설계경기에서의 보다 정교한 용어의 사용과 실질적인 설계 내용의 뒷받침이 절실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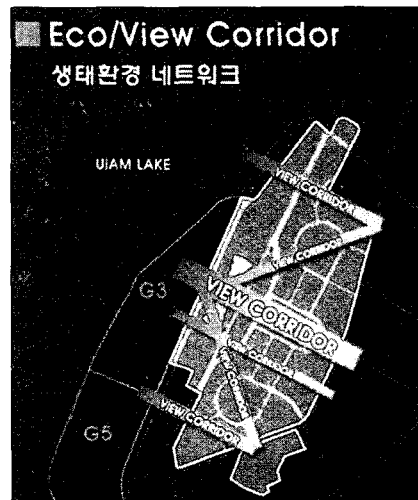


그림 11. 생태/조망 코리더 다이어그램  
 자료: <http://www.g5projec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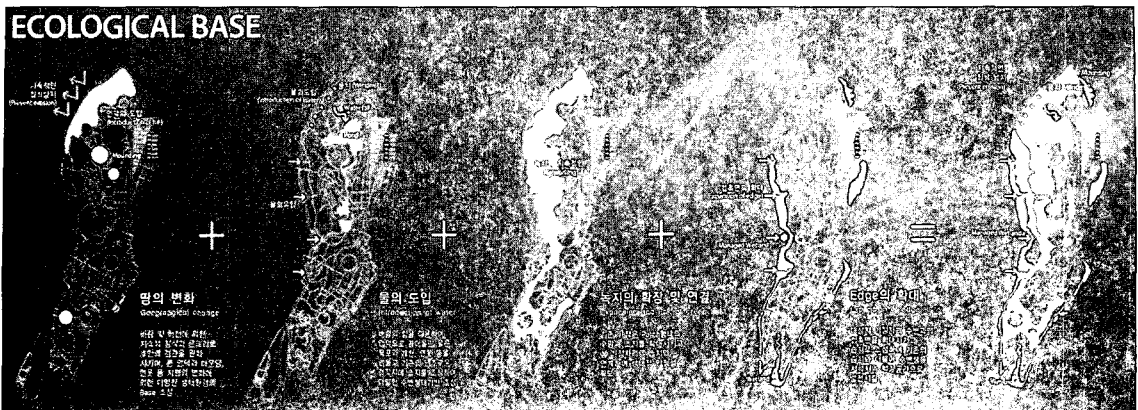


그림 12. 생태기반조성 다이어그램

자료: <http://www.g5project.co.kr>

### 3. 표현

설계경기의 당선여부가 설계안 자체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표현방법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표현은 단순한 재현의 차원을 넘어서 설계 전략의 연장이며 표현되는 내용은 설계의 결과물이자 또 다른 차원의 설계안이 된다.

A안에서 주목할 것은 과거에서부터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이다. 이러한 대상지의 변화 다이어그램은 D안에서도 발견되며 통시적인 관점에서 대상지의 개발 잠재력을 보여준다. 드라마시터를 겨냥한 B안은 영화의 미장센을 구성하듯 작은 프레임으로 나누어 화면을 구성하는 등 전체적인 화면구성을 통하여 설계개념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선보였으나,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독특한 드로잉의 형식은 보이지 않았다. C안은 표현상 가장 큰 특징은 다이어그램적 플랜이다. 인공위성 사진과 같은 구체적 이미지가 아닌 몇 가지 색으로 간략히 표현되는 배치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은 땅의 조각(patch)이 모아진 퀼트(quilt)를 연상시키며 설계의도를 명확히 전달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설계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형태를 결정하기보다는 적절한 도시 이미지와 발전 전략을 기획하는 역할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C안은 비교적 성공적인 표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단면과 공간 프로그램의 합성인 Section & Program Map과 포토몽타주에 의한 투시도는 중도(G2)에서 체험하

게 될 다양한 경관을 설명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이러한 그래픽은 건물이 약화되거나 삭제되어 있어 경관의 물성을 포착하는 데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중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장치로 건축물이나 깊이감 있는 구도가 요구되지 않는 뷰에 한하여 포토몽타주 기법의 투시도를 사용하였다. D안의 표현방식은 다른 7개의 안에 비하여 매우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배치도의 경우 유일하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색연필에 의한 회화적 표현으로 도시의 서정적인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표현된 내용의 압축과 추상 정도로 볼 때 8개의 안 중 가장 다이어그램적이다. 나무 한그루 심어지지 않은 중도의 배치도는, 함께 제시된 포토몽타주된 단면도와 일련의 다이어그램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E안은 포토몽타주된 경관의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으나 중도의 경우 설계안의 형태적 특이성에 비해 설득력 있는 다이어그램이 부재하다. F안에서 제시된 “Making Ecological Base” 다이어그램은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8개의 안 중 생태적인 작동기작과 공간과의 관계를 설명한 유일한 표현이다. 시간에 따른 공간 진화—땅, 물, 녹의 변화—가 설계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소가 됨을 주장한다. H안에서는 중도의 배치도에만 특별히 색연필 터치를 가미하여 도시와는 별도의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8개의 작품 대부분은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투시도와 배치도를 위주로 한 표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그림 13 참조). C안과 D안을 제외하고는 배치도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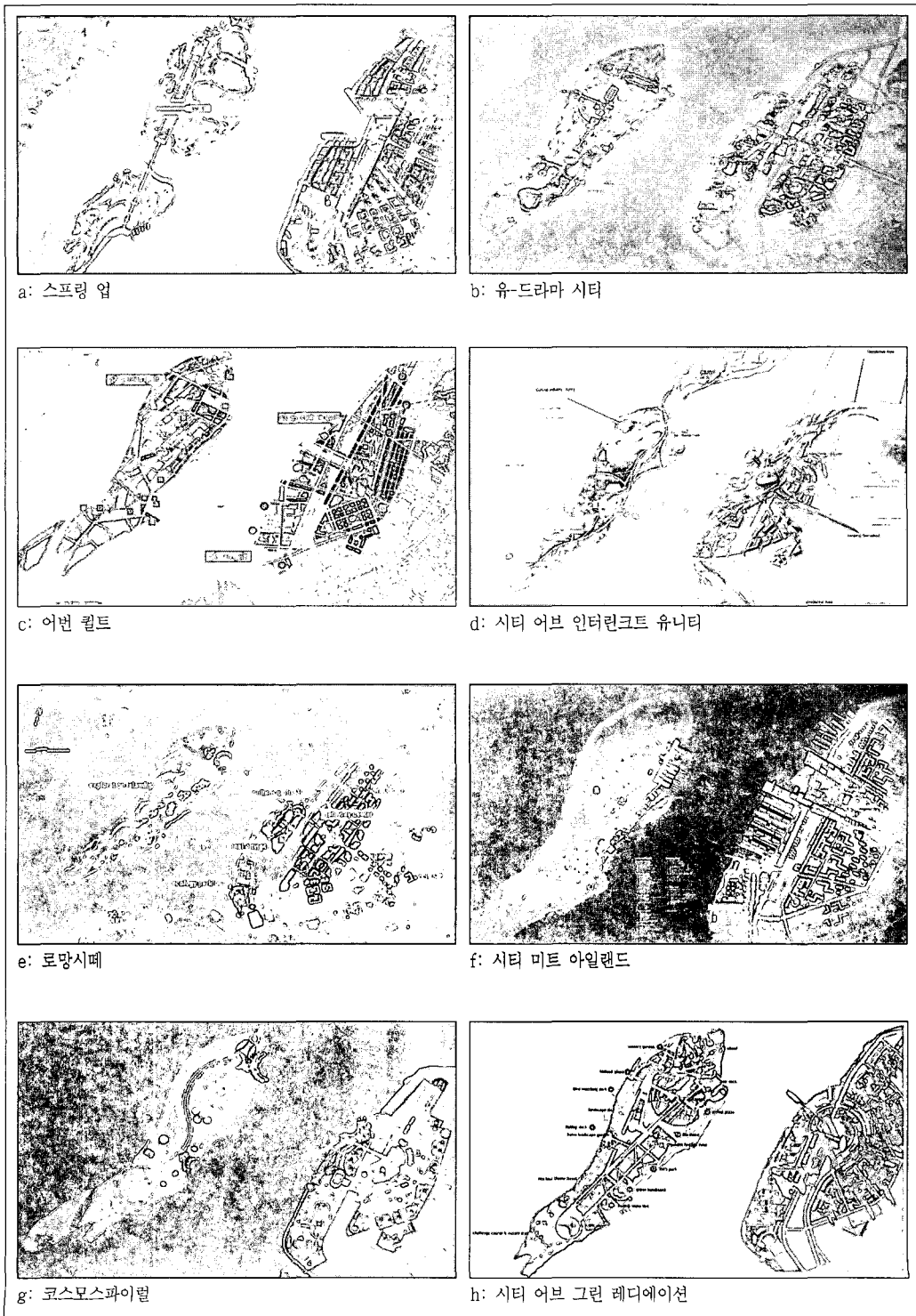


그림 13. 국제설계경기 8개 출품작의 마스터플랜  
 자료: <http://www.g5project.co.kr>. 필자 제작성



수준이 구체적이고 정교하여 2020년 이후의 변수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한다. 물론 거대 규모의 프로젝트를 제한된 도판에 표현하는 것 자체가 구성성의 수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된 표현방식이 도시의 완결된 시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일 것이다. 완결성있는 도시의 상을 제시하느냐, 변화의 가능성을 전제하여 완성되지 않은 도시의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제시하느냐가 설계팀들이 택해야 했던 태도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표현방식의 수위조절이 일반대중들과의 소통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설계경기의 최종 당선작을 시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주최측의 강력한 의지는 설계가에 있어서 어떻게 일반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 자료와 일상적인 시선에서 보이는 투시도 등이 최종 당선작을 겨냥하여 전략적으로 채택

되었을 가능성도 높다.

#### 4. 종합

앞서 논의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표 4와 같다. 전반적으로 C, D, F 컨소시엄에서 제안된 설계안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된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전달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은 대상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러한 대상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설계안으로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으며, 당연한 결과로 분석부분에 대한 대안적 드로잉도 시도되지 못하였다. 설계내용에 관하여는 아직도 경관의 픽체레스크적 속성, 즉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경관개념이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경관에 대한 입장과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간성, 유동성, 변화 가능성, 불확정성에 대한 언급이 미약하였으며, 다 분야간 협업의 창의적인 시너지 효과가 조경설계 영역에까지 확장되지는 못하고 있

표 4. 분석의 종합

범주	분석 사항	분석 내용	A	B	C	D	E	F	G	H
분석	대상지	분석도면의 유무	○	○	○	○	-	-	-	-
		대상지의 특수성에 대한 언급	-	-	-	-	-	-	-	-
		분석내용과 설계안과의 연관성	-	-	○	-	-	-	-	-
내용	수평성	장으로서의 경관의 개념	-	-	○	○	-	○	-	-
		표면의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	-	○	-	-	○	-	-
		다핵구조의 외부 공간 시스템	○	○	○	○	-	○	-	-
	기반시설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경관	○	○	○	○	○	○	○	○
		열린 구조의 인프라 스트럭처	-	-	○	○	-	○	-	-
	프로세스	시간의 개념	○	-	-	○	-	○	-	○
		설계안의 형태의 변화 가능성	-	-	○	○	-	-	-	○
	테크닉	다분야간의 협업	○	○	○	○	○	○	○	○
		혼성적 복합적 경관	-	-	-	-	-	-	-	-
생태학	프로세스와 복합성	-	-	-	-	-	○	-	-	
	경관의 물성	-	-	○	○	-	○	-	○	
	개념의 도시로의 확장	-	-	-	○	-	-	-	-	
표현	대안적 표현방식	매핑	-	-	-	-	-	-	-	
		다이어그램적 플랜	-	-	○	○	-	-	-	
		전략적 다이어그램	-	-	○	○	-	○	-	○
		포토몽타주	-	-	○	-	○	○	-	-

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학이 내용적인 내실을 다지기 보다는 여전히 유행처럼 형식적인 수준에서만 거론되고 있었으며, 생태학의 핵심논리가 도시로서 확장되어 사고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또한 표현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설계안을 부각시키기 보다는, 관행적인 그래픽위주로 처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춘천 G5 국제 설계경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조경설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던 좋은 분석의 대상이었다. 이번 설계경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기회성과 한계성이 드러났는데, 특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춘천 G5 설계경기의 분석내용과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G5 설계경기에 나타난 전반적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성향은 아직까지는 주도적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의 설계경기는 비록 국제적인 규모로 진행되더라도 여러 가지 국내의 특수적인 여건으로 인해 해외의 일반적인 설계경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일반인들의 평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던 본 G5 설계경기에서는 일반인들의 정서와 이해타산을 고려하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고려해야 했으므로 실험적이며 새로운 설계적 이슈를 제안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아이디어들이 구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현실감 있는 이론적 모형과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조경설계 부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경설계업체가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전혀 포함되지 못했던 구조적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같이 아직까지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해외의 설계경향이 실제 국내 조경설계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채택하고 받아들여지기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 전문분야의 독자성보다는 협업과 상호조정에 의해 창의적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구조적인 현실과 그러한 구도를 전제로 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전문분야들간의 원활한 소통체계와 그러한 소통체계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실천의 구조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셋째, 아직까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낯선 이론이며 이를 현실화하는 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론은 이론 자체의 진화가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변증법적 검증과정을 통해 발전한다. 본 설계경기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시도는 설계이론이 가장 선구적으로 시도되고 실험될 수 있는 무대가 설계경기이며,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도시프로젝트, 즉 신도시 건설이나 도시재생 프로젝트들을 도시에 대한 조경분야의 끊임없는 문제와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경분야는 커져가는 도시의 외부 공간과 경관 인프라 스트럭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끊임없이 이론을 검토하고 적용하고 그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의 업역을 교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이론적으로 정립되어가고 있으며, 실제 설계경기 등을 통한 실무영역에서도 도입되고 있는 설계경향의 하나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아이디어를 문헌검토에 의한 분석의 틀을 통해 국내의 국제 설계경기였던 춘천 G5 프로젝트를 해부해 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의 이론을 국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보다는 그 분석의 틀을 여과없이 그대로 적용하였으므로 그 즉각적 도입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사점을 가질 수 있으나 반면 국내의 특수성을 섬세하게 파헤치는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도판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설계가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을 분석할 수 있었으나, 그 의도와 표현의 다양한 수위와 섬세함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띄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설계내용의 방대한 양을 제한된 항목에 준거하여 도출된 것이므로, 설계안의 최종적인 우수 성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내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설계경기의 수적인 규모에 비하여에 대한 분석과 비평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도시규모의 프로젝트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이론적,

실천적 모형을 실험하고 제시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주 1. 2005년을 기준으로 춘천시의 인구는 총 254,323명이며 (<http://www.chuncheon.go.kr/>), 미래 춘천의 자연스러운 인구규모는 수도권 동부 중심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50만 명 정도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김석철, 2005).
- 주 2. 춘천 G5 프로젝트에서 "G"는 Geneva of Asia, Great Chuncheon, Green Chuncheon을 상징한다(강원도개발공사, 2005b: 8).
- 주 3. Jon T. Lang (미국, Univ. of New South Wales 도시설계 교수, 건축가)과 김창호(한국,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가 공동심사위원장으로, Mark Francis(미국, Univ. of California, Davis 조경학과 교수, MIG/Codesign 파트너), Colin Fournier(영국, Univ. College of London 건축학과 교수, Spcaelab 파트너), Jeffrey Ho(싱가폴, Surbana International Consultants Pte. Ltd.), 김진균(한국,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교수), 이상은(아주대학교 환경건설교통 공학부 교수)이 심사위원으로, 진정화(한국,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진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 밖에 기술위원으로 김근, 방연근, 정우철이 참여하였다.
- 주 4. 스탠 알렌(Stan Allen)은 다이어그램적 작업을 '사회적, 기술적, 그리고 도시적 다양함을 교섭하고 현실화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공간 시스템과 연동 메카니즘을 결정하는 수단으로써 다이어그램의 새로운 기능으로 제시한다(Allen, 1998: 16).
- 주 5. 포토몽타주(photomontage)는 여러 사진들에서 부분적으로 잘라낸 이미지를 합성하여 재구성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의미하며, 빅토리아 시기 이상하고 우스꽝스러운 형태의 인간 모습이 담긴 엽서가 처음으로 몽타주기법에 의해 제작되었다.
- 주 6. 송유진과 조정송(2006: 37)은 포토몽타주에서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표현방법들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스케일의 조작, 사각 프레임을 벗어나는 표현방법, 플라주 기법의 근본원리라 할 수 있는 다시점의 표현이 그것이다.

## 인용문헌

- 강원도개발공사(2005a) 춘천 G5 프로젝트 문화관광 복합지구 조성사업 국제현상공모 설계지침서.
- 강원도개발공사(2005b)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계획.
- 김석철(2005) 희망의 한반도 프로젝트. 서울: (주)창비.
- 김아연(2005) 브리지파크국제설계경기에 나타난 현대 조경설계의 경향. 한국조경학회지 33(5): 18-30.
- 김정은 위음(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Space 457: 146-169.
- 배정환(2004)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성남: 도서출판 조경.
- 송유진, 조정송(2006) 포토몽타주와 현대 조경 설계의 표현적 경향. 한국조경학회 2006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초록집. pp. 34-38.
- 신근혜(2004) 환경설계의 다이어그램적 설계사고에 관한 연구: 대운스뷰공원 설계경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선영(2006) 맵핑의 실험. 환경과 조경 219: 114-117.
- 정옥주, 제임스 코너(2005) 프레쉬 킬스 공원 조경설계. 한국조경학회지 33(1): 93-108.
- Allen, S.(1998) Diagrams Matter. New York: Anyone Corporation.
- Burns, C. and A. Kahn(2005) Why site matters. In C. Burns and A. Kahn, eds., Site Matters. New York: Routledge. pp. vii-xxix.
- Corner, J.(1999) The agency of mapping: speculation, critique and invention. In D. Cosgrove ed., Mappings. London: Reaktion Books Ltd. pp. 214-252.
- Corner, J.(2003) Landscape urbanism. In M. Mostafavi and C. Najile, eds., Landscape Urbanism. London: AA Publication. pp. 58-63.
- Eisenman, P.(1999) Diagram Diaries. New York: Universe Publishing.
- Koolhaas, R., M. Bruce, and H. Werlemann(1997) S,M,L,XL (2nd ed.). New York: Monacelli Press.
- Kilcoyne, M. C.(2004) On reading MacKinnon Woods.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57(3): 18-23.
- Mathur, A. and D. Cunha.(2001) Mississippi Flood: Designing a Shifting Landsca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eyer, E.(2005) Site citation. In C. Burns and A. Kahn, eds., Site Matters. New York: Routledge. pp. 93-129.
- <http://www.chuncheon.go.kr/>
- <http://www.edaw.com>
- <http://www.g5project.co.kr>
- <http://www.pdp.ca>

원 고 집 수: 2006년 7월 7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6년 8월 13일  
 3인의명 심사필